7년만에 새 앨범 '풍운' 낸 광주 출신 가수 김 원 씨

"21년 무명이지만 희망의 노래 계속할 것"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송대관의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싶어 가수의 꿈을 접지 못 하고 달려온 지 21째다. 하지만 이름과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무명가수다.

그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신승훈, 김건모, 박미경 등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무명의 설움을 달래며 함께 미사리를 지켰던 추가열과 윤태규도 유명세를 탔다. 한때는 세상이 날 몰라준다는 생각에 원망도 많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단 한 명 일지라도 내 노래에 희망을 품는 이가 있다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다.

광주 출신 가수 김원(본명 김원국)씨가 7년 만에 신곡 앨범 '풍운'을 발표했다. 재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성도 높은 음악을 들고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다.

> "음악은 내게 종교와도 같아 시련 딛고 꿈 이뤄가는 과정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음악인생도 돌아보고 생계를 위해 가요교실을 운영하면서 음악에 대한 기본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대기만성'이라는 말에 희망을 안고 한걸음씩 나아간 덕분에 이번에 좋은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3집 타이틀 곡인 '풍운'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 등 악재가 겹치자 음악에 대한 꿈을 정리하기 위해 찾았던 무등산 정상에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던 글을 모티프로 곡을 만든 것이다.

앨범 수록곡 중 '저 하늘의 기억'은 딸에게 바치는 노래로 어쿠스틱 기타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곡이다. 음악에만 빠져 딸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아빠의 미안한 마음을 담았다. 그밖에 앨범에는 '그리움은 바람처럼' 등 모두 10곡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은 그가 직접 작곡, 연주, 프로듀싱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한껏 펼친데다 '귀거래사'라는 곡으로 90년대 큰 사랑받았던 가수 김신우가 작사·작곡 등에 참여해 기대가 크다.

90년대 김씨는 '마이웨이'로 유명한 윤태규, 추가열과 함께 미사리 카페촌에서 잘나가던 포크가수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었다. 당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미사리촌의 '피아노맨'으로 불렸던 김씨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주 실력 덕분에 장동건, 김소연, 채림이 출연했던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MBC)에 서장동건 대역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그에게는 세종대와 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 '88 예술단' '서울예술단' 등에서 활동한 이색 경력도 있다.

"무용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 서면서도 부업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던 중 노래가 제 삶을 지탱해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현재 그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라이브 카페 '풍암콘서트'에서 매일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저에게 음악은 종교와도 같아요. 수많은 시련을 딛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위기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가족 보여줄게요"

'내 인생의 황금기' 문 소 리

"이번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가족을 보여주겠습니다."

영화배우 문소리가 30일 첫 방송하는 MBC TV '내 인생의 황금기'(극본 이정선, 연출 정세호·김대진)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다.

그는 드라마에서 맞바람을 피다가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육아의 고통, 실직, 가족의 위기 등을 헤쳐나가는 3남매의 맞이인 이황으로 출연한다. 자기애가 강하고 세련된 외모의 책 디자이너 역이다.

그에게 이번 작품은 '태왕사신기' 이후 두 번째 드라마다.

"'태왕사신기'에 출연해 봤지만 이번이 사실상 첫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태왕사신기'는 방송국 세트장에서 한 번도 촬영하지 않는 등 전통적인 드라마 제작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왕사신기' 방송 당시 '미스 캐스팅' 논란 등으로 심한 마음 고생을 겪기도 했다.

"'안티'와도 이제는 친해진 기분입니다. '주말 드라마를 6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찍나'는 등의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드라마의 정수를 배우고 싶어 출연을 결정했지요. 다만 이 드라마를 처음 찍을 때 마치 숟가락, 젓가락질만 하다가 포크와 나이프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핸드볼 선수로 출연한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핸드볼 중계를 보며 감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점 차로 패한 노르웨이와의 준결승전 후 임오경 해설위원과 전화통화하면서 엉엉 울었다"며 "그래도 멋진 경기였고 값진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다크 나이트	42만7천190	321만415
2	고死:피의 중간고사	14만8천708	144만1천478
3	CJ7:장강 7호	14만6천508	17만2천725
4	월·E	12만8천52	88만9천65
5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1만4천889	14만3천937
6	미이리3:황제의 무덤	10만406	403만4천758
7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8만5천782	689만2천110
8	다찌마와리	8만1천185	52만9천885
9	아기와 나	7만2천77	35만6천798
1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7만641	191만1천52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엄마가 뿔났다	KBS2	32.9
2	너는 내 운명	KBS1	29.2
3	(올림픽)아구 금메달시상식(생)	MBC	28.1
4	(올림픽)아구 결승(생)	MBC	27.6
5	(올림픽)태권도, 아구	MBC	27.1
6	(올림픽)태권도 남-80㎏ 초과 결승	MBC	23.4
7	식객	SBS	22.1
8	(올림픽)아구 결승(생)	KBS2	20.8
9	행복합니다	SBS	19.6
10	(올림픽)탁구 여자단식예선(생)	SBS	18.7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추격자	액션
2	점퍼	SF
3	10.000 BC	드라마
4	내셔널 트레져:비밀의 책	액션
5	88분	액션
6	색즉시공 시즌 2	코미디
7	즐거운 인생	드라마
8	식객	드라마
9	스텝업2:더 스트리트	드라마
10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	어드벤처

〈자료제공:영화마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하루 하루	빅뱅
2	유고걸	이효리
3	사랑과 전쟁	다비치
4	신데렐라	서인영
5	천국	빅뱅
6	사랑해 미안해	지아
7	소 핫	원더걸스
8	가지마 가지마	브라운 아이즈
9	이 노래	2AM
10	사랑을 원해	쿨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